

제주 해안의 수중관광지로서 타당성 연구 - 제주도 어영해안가 일대를 중심으로 -

김 세 민¹⁾ · 류 재 청²⁾ · 남 사 웅³⁾

A Validity Survey for Point Development as Underwater Leisure Sports-tourism and Study Field - On Centering Eu-Yeng Shore Area of Jeju city -

Kim, Sei-Min · Ryew, Che-Cheong · Nam, Sa-Ung

ABSTRACT

The survey was undertaken to suggest validation of underwater leisure tourism point development of Eu-Yeng coast line of Jeju city after comprasion in economic level, quality of underwater scene, distribution of underwater animal & plants, underwater geographic figure, safety, a number of visitors through a year with other points of Jejudo.

On the basis of survey conclusions obtained was to be based on 'aviation-ocean-mid mountain, on each avi ation leisure sport-golf leisure sports-ocean sports tourism mixed passive tourism and eco-nature environmental participating tourism cconcepts for underwater tourism of leports and experiencing for youth.

In terms of 21c Jeju International no-visa metropolitan city, its center Jeju city will be faced that resident population inflow, improved economic situation, increased leisure time, ect phenomenia will be necessary for its city to develope active participating style's leports-tourism items differentiating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items

By development of tourism items of eco-nature environmental leisuresports style, Tourism differentiated with the other will be elevated competition and for this future developmental direction must be based on 'ocean-midmountain-orum-sky, of various ocean tourism leports, golf tourism, aviation tourism leports of participating style's tourism by only Jejudo's natural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concerned with ocean leport tourism of Jeju city. It will be desirable to develop, investment of facility, offer various participate program linklng Eho beach-Euyeng cost line point-Leports park-Yongdoam concerned with ocean leport tourism of Jeju city's Euyeng cost load point. When developed of experiencing underwater tourism point, Effects of income level, occupational problem will be futher good condition and offer differentiated

1)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조교

2)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3)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tourism items to other local government's.

1. 서론

21세기는 종전의 급속한 산업화, 고도의 경제성장, 자동화, 정보화에 의한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경제적 소득증대, 노동시간의 단축, 생활의 질적 향상의 결과로 레저·스포츠 활동의 참여가 보편화된 현상은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적인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21세기의 레포츠 관광 산업(leisure-sports tourism industry)은 굴뚝이 없는 무공해적이고 고부가 가치성, 지역특수성에 따른 상품개발, 서비스산업으로서의 고용증대 등의 이점을 가지는 주요 산업으로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상승시키는 효과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해 사회복지를 실현할 시킬 수 있는 미래첨단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해가고 있다.

국가 및 지역의 문화관광상품으로서 레포츠 관광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각종 레포츠 이벤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지역의 산업촉진, 인프라기반구축, 고용증대, 서비스산업발달, 스포츠 용품산업발달 등을 들 수 있다.

레포츠(leisure + sports)는 여가시간을 즐기면서 취향에 맞는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및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신체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의 수동적인 스포츠관광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형태로서 신중 레포츠의 모험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골프, 오토바이 대륙횡단, 스쿠버 다이빙, 헬글라이딩, 수상스키, 패러글라이딩, 급류타기 등과 같이 레저성이 강한 스포츠를 들 수 있다. 「레포츠는 경쟁적인 스포츠 종목을 가르키는 개념을 탈피하여 어떤 즐거움이나 기분 전환 등의 목적성을 가질 때를 말한다」고 레저진흥협회는 정의하고 있다.

또한 관광(tourism)의 개념은 1년 미만동안 일상적인 거주지를 벗어나서 여가, 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여행하거나 머무르는 활동(세계관광기구, World Tourism Organization)으로 광의의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새로운 체험과 심신의 재충전을 위해 관광지역의 자연, 시설, 경제, 문화 등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주거나 받으면서 체험하거나 즐기는 자유로운 경험이라 할 수 있다(김학신 외, 2000).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 영역은 레포츠를 겸한 관광활동이 혼합되는 영역으로서 현대관광의 동향은 종전의 정적관광(수동적)에서 탈피하여 움직임(능동적)에 참여하는 관광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광과 레포츠의 연계성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윤이중 외, 1999). 또한 능동적 여가활동은 수동적 여가활동보다 여가만족에 크게 기여하고, 이는 여가활동이 최적으로 각성될 때 여가만족이 최상이 되고 여가활동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최하가 되고, 이러한 결과는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여가활동이 개인의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고 보고한 연구(Campbell, 1976; Macncini 과 Orthner, 1980; 정영린과 이홍구, 1996)와 일치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21세기의 관광형태는 과거의 수동적인 틀을 벗어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스릴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레포츠 관광의 형태로 변모해 나아갈 전망이며, 이러한 형태의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을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개발하므로써 지방자치체의 정부하에서 지역경제 및 고용 증대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는 크다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스포츠 산업의 발달 계기는 60-70년대 경제발전정책이 성공하면서 국가적으로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인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대되어 국민의식에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잉여의

시간과 소득을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이 현상은 엘리트 스포츠를 표방하고 나선 정부의 체육정책이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생활체육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확산되어 현재에는 스포츠 산업의 구조 역시 스포츠 서비스 및 정보산업, 스포츠 용품산업, 스포츠 시설 및 공간산업의 전통적인 3가지 영역에서 더욱 진화되고 세분화되어 스포츠 관련 유통업, 시설 공간관리업 등의 신종 산업이 출현하므로써 경제적 파생, 고용효과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김치조, 1997).

최근 들어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광객유치 등의 목적으로 각종 레포츠 관광상품의 개발과 투자에 이어 유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레포츠 관광상품개발, 광고와 이벤트, 프로그램 서비스, 마케팅 전략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적합한 산업구조에서 투자우선순위도 변화시켜 나아 가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레포츠 시설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특성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한국관광연구원, 1997), 21세기 레포츠 관광정책의 방향은 급속한 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형태에 대응하는 수요-공급 차원에서 탄력성을 가지는 시설의 다양성과 현장의 서비스, 프로그램, 행사기획, 상품개발(프로그램 개발, 레저관광코스개발, 관광상품 가격결정),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세분화하여 표적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오정영, 강진형, 김학신, 1999)고 제안했다.

미래의 관광형태는 자연 친화적인 항공 및 해양스포츠, 내륙·산간을 이용한 스포츠에서 수면·해양을 이용한 해양 레포츠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인공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레포츠에서 지형과 지리적 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레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므로써 관광객은 물론 청소년들의 산과 바다 및 강의 자연상태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포츠를 통한 친환경적 교육차원의 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야외스포츠(outdoor-sports)의 특성은 기교스포츠(techno-sports)와 자연스포츠(eco-sports)의 방향에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였고(william O. Johnson, 1974), 현재 기교스포츠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스포츠 장비의 개발로 다양한 스포츠 유형이 개발되었고 관중들의 흥미를 끌어들였다. 반면 미래의 스포츠는 지역의 특수적, 자연 친화적인 환경속에서 산, 바다, 호수, 강, 하늘을 이용한 자연 스포츠로서 카누, 하이킹, 산악등반, 스쿠버다이빙, 야외수영, 보트타기, 급류타기, 요트, 윈드서핑,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스키, 번지점프, 골프 등으로 자연속의 스포츠는 경제수준과 여가시간의 증대와 비례하여 계속 성장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의 관광개발 전략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관광지를 중심으로 야외 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성공률이 높을 것이며(윤이중, 1999), 특히 현재 세계관광객의 70%이상인 해양과 관련된 레포츠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지 선호도 분석결과 도서 및 해양환경 속에서 머물고자 하는 관광객 수가 전체 관광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윤이중 외, 1999). 이러한 동향에 맞게 미래에는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고 지금까지의 정적 여가활동에서 탈피하여 동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산악이나 내륙보다는 해양을 중심으로 여가공간을 확보·유인하는 정책이 국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구성은 1998년 현재 제 1차산업의 비율이 0.1%, 2차산업이 12.4%, 3차산업이 87.5%를 차지하고, 여기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인구 역시 1차산업의 경우 0.5%, 2차산업의 29.9%, 3차산업의 경우 69.6%로서 3차산업의 비율이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제주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1999).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산업구조에서 과거는 물론 21세기 미래산업의 경우는 3차산업의 비율이 더 크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3차산업의 구조도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해양-하늘-산」을 기본으로 하여 관광객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레저 상품개발을 위해 더욱 투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제주도의 레포츠 관광의 경우 지방자치제로 전환 이후 생존 전략 산업으로서 각종 문화행사, 스포츠 산업, 해양산업, 아열대산업, 관광산업의 주요 정책으로 전환하여 종전의 산업구조를 국민의 의식구조, 생활수준의 변화,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시대와 국제상황에 걸맞게 변화시켜 국제자유도시로서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전의 제주도 주요 정책과정에 없었던 고부가 가치산업인 「스포츠 산업」을 강조하므로서 전국 및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 및 레포츠 관광 도시로서의 홍보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제주를 찾은 스포츠인구와 레포츠 관광인구는 자연스포츠(eco-sports)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즉 「오름(사계절 가능한 인공스키장)- 바다(해양레포츠)-중산간(골프시설)-하늘(항공레포츠)」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제주도의 주요 공간으로 각각의 친환경적 자연자원의 기능을 적절히 개발하고 보존하게 될 때 미래의 레포츠 관광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종전까지 제주관광산업의 구조는 주로 수동적인 관광형태 상품이였으며, 이의 상품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30년 안팎으로서 이미 구시대의 상품으로 전략한 상태이며, 이는 현대인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 형태가 레포츠를 겸한 관광활동이 혼합형의 의식구조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형태의 상품이며,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여가활동이 개인의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는 보고(Campbell, 1976; Macncini 과 Orthner, 1980; 정영린과 이흥구, 1996)한 연구와 일치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래의 제주 레포츠관광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주도 특성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투자가 절실한 때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배경으로 『제주관광의 만족도 조사』(제주관광협회: 1996)에서 수동적 관광형태인 시각적인 관광에서 『볼 것 다봤다』고 대답한 결과를 볼 때 『보는 관광』의 상품이 고갈되었거나 매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관광객의 성향별로 각각 『취향에 맞는 것』과 『스스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관광』 형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동적인 관광형태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자연속의 레포츠 관광상품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제주의 특성에 적합한 오름(항공)-해양스포츠-중산간(골프)을 이용한 레포츠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즉 인공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레포츠에서 자연지형과 지리적 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레포츠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므로서 관광객은 물론 청소년들의 산과 바다 및 하늘의 자연상태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 관광 및 자연학습 체험장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광객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레포츠관광상품을 통한 친환경적 관광과 교육차원의 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자연 친화적인 수중 레포츠 관광상품의 분포는 남제주군과 서귀포시 일대 해안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수중 레포츠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부담해야 하는 더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비하는 경향이였다.

반면 제주국제공항의 인근 제주시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 수중경관을 다소간의 편의시설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필요시설과 투자와 홍보에 관심을 가질 때 시간과 경비면에서 절감효과를 노리고, 청소년들의 수중의 아름다운 모습을 안전하게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 활용하는 데 훨씬 용이하게 되고, 제주 남부 해안에만 치중된 것으로 알려진 수중레포츠 관광코스의 분포도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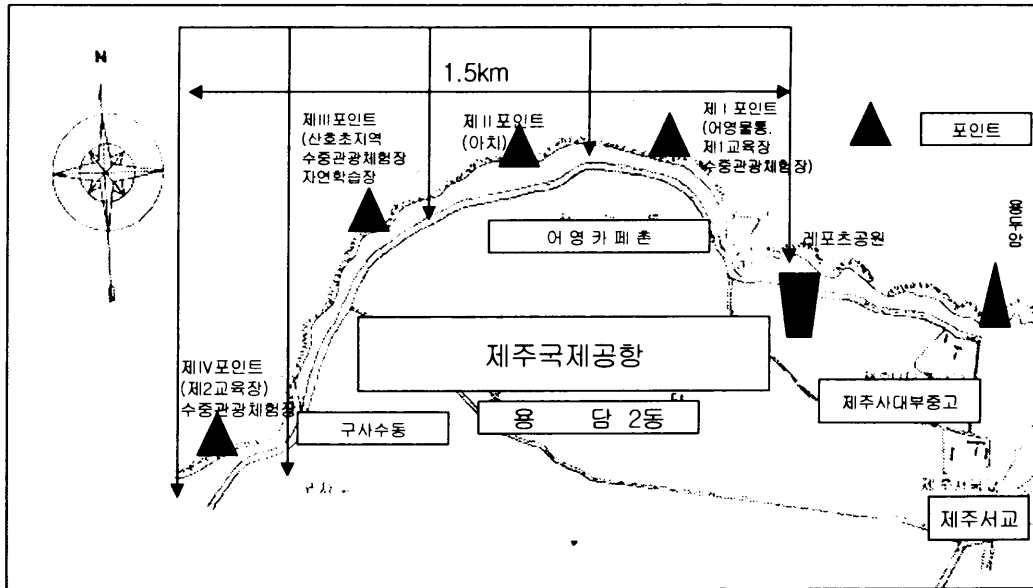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알려진 다른 지역의 수중관광 포인트와 제주시 어영해안도로변의 포인트를 경제성, 상품성, 수중 동식물 분포, 수중지형, 안전성, 년중 방문객 등의 면에서 타지역과 서로 비교한

후 제주시 어영포인트의 개발 가치성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적 레포츠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으로서 제주시 해안도로가에 위치한 수중포인트를 대상으로 「수중 레포츠 관광 및 청소년들의 체험 학습 장소를 위한 해양관광 코스의 상품개발을 위한 방안」에 관한 타당성, 을 지방자치정부에 수중 레포츠 관광 코스의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지역

제주시 어영 해안도로변의 ①레포츠공원-②어영 물통-③아치포인트-④먹거리촌 뒤 산호 자생지역-⑤공항 전투경찰대 앞의 1.5Km구간으로 레포츠공원, 어영물통포인트(제 I 포인트), 아치포인트(제 II 포인트), 산호군락지역(제 III 포인트), 전투경찰대 정문(제 IV 포인트)을 <그림-1>과 같이 구분하여 수중과 해안의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림-1> 제주시 어영해안도로 지형 포인트

2. 조사내용

1) 어영해안도로 포인트별 분류

제주시 어영 해안도로변 수중관광 및 학습장의 개발 방안은 수중 지형의 특성과 수심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일반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위한 체험관광코스, 초심자코스, 고급과정코스, 체험 및 학습다이빙코스 등으로 분류하여 적합성을 조사하였고, 이의 조사 내용을 제주 전지역의 다이빙포인트와 분석 및 비교하였다.

2) 해양 생태계의 파악

년중 어영 해안도로 제 I, II, III, IV포인트 주변의 수심(10m내외, 15m내외, 25m내외)에 따라서 수중촬영을 통하여 대표적인 수중 동·식물의 분포를 분석했고, 지형특성, 조류특성, 년중 평균 수온 및 가시거리, 수중의 오염으로 인한 백화현상에 대한 인공 녹화사업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3) 접근의 용이성 및 방문객현황

제주시청과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어영 해안도로 포인트와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포인트와의 시간, 거리, 경제성,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비교하고, 년중 방문객의 수와 성향을 파악하였다.

4) 각종 편의시설 및 보완시설

포인트별 의료응급시설, 휴식공간, 회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 강의실, 초보자를 위한 해수 풀장 교육장소, 준비운동 공간, 수중인공구조물 설치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5) 행정지원 및 실태

제주도 특별법 조례안의 통과로 인한 수중관광의 자율화와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제주시-제주관광협회-어촌계-학계간의 협력방안과 행정적 뒷받침 및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다.

3. 조사기간

제주시 어영해안도로를 일대로 수중경관, 해안의 특성, 방문객수와 성향, 해양생태계 및 제주 전지역의 포인트와의 비교를 1999년 5.1 - 2000. 5.1일까지 주기적으로 년중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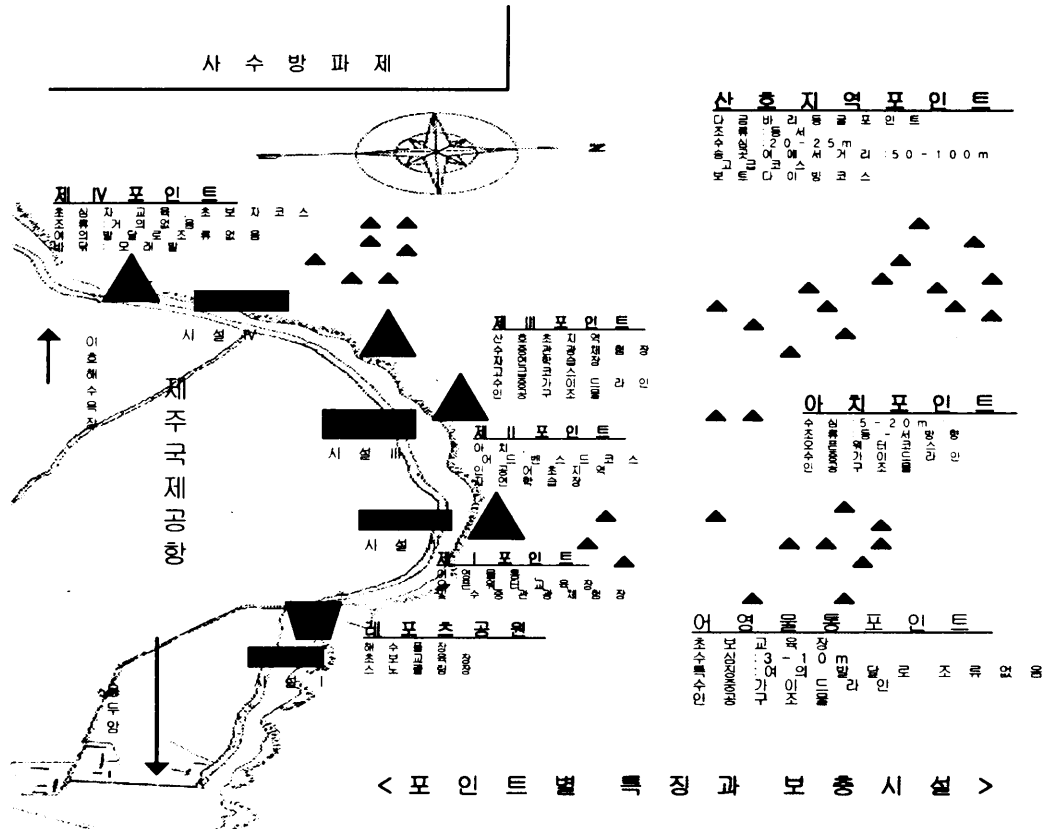
1. 조사지역의 특성

제주시 어영 해안도로와 인접한 지적도는 <그림-2>과 같으며, 동쪽으로 레포츠 공원과 용두암, 서쪽으로는 이호해수욕장이 연결되어 있다. 제주시에서 서쪽에 위치한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접근이 용이하여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들의 각종 행사장과 축제의 장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시즌기(5월-9월)에는 해수욕, 바나나보트, 페러세일링, 윈드서핑, 모터보트 등의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각종 해양레포츠 동호인과 시합이 개최되는 곳으로 정착을 해가고 있다.

어영 해안도로 동쪽에 위치한 용두암의 경우는 년중 관광객으로 붐비는 관광포인트로 알려져있고, 인접한 레포츠 공원 역시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 공간으로 정착을 해가고 있다

어영 해안도로의 수중관광 포인트는 서쪽의 경우 각종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호해수욕장과 동쪽의 경우 년중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매력을 끌고 있는 용두암과 시민의 레포츠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어영 해안도로 수중관광 포인트와 나란히 건축되어 있는 수많은 카페촌과 먹거리촌의 형성으로 인해 주·야간으로 아름다운 해안가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실정이다. 방문객의 수와 지형적 특성 및 인근 레저스포츠 및 관광지가 연결되어 있는 어영 해안도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중관광과 연계하여 적절

한 포인트 개발과 시설투자 및 홍보활동을 펼쳐나아갈 때 성공적인 해양레저·관광지로서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2> 제주시 해안도로 포인트별 특징과 보충시설

이의 배경으로 『제주관광의 만족도 조사』(제주관광협회:1996)에서 「제주관광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혹은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볼 때 『보는 관광』의 한계를 알 수 있고, 관광객의 성향별로 각각 『취향에 맞는 것』과 『스스로 참여하는 능동적 체험관광』 형태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하고 투자해야할 관광상품은 수동적인 관광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친환경적인 자연속의 체험레포츠 관광상품임을 알 수 있고, 특히 제주 자연환경의 특성에 따른 해양레저 관광스포츠 상품 개발로 타지역의 관광상품과는 차별화시켜 나아갈 때 21세기 국제자유도시화에서 관광에 대한 의식구조가 변화된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래의 관광개발 전략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관광지를 중심으로 야외 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성공률이 높을 것이며(윤이중, 1999), 특히 현재 세계관광객의 70% 이상이 해양과 관련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지 선호도 분석결과 도서 및 해양환경 속에서 머물고자 하는 관광객 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윤이중 외, 1999)고 보고했다. 이처럼 수요자 측면에서 관광상품에 대한 의식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21세기 국제자유도시화 및

지역특성화에 따른 해양관광레포츠 상품개발에 새로운 투자 및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레포츠 공원의 시설보완, 어영물통포인트(제 I 포인트), 아치포인트(제 II 포인트), 산호자생지역포인트(제 III 포인트), 전투경찰대앞 포인트(제 IV 포인트)으로 구분하여 수중과 해안의 특성을 중심으로 약 1.5km구간에 대한 개발 및 보완시설로 어촌계-제주시-지역주민-학계의 협력하에 지역의 해양레포츠 관광 상품을 개발하므로써 국제자유도시화에 따른 관광객의 여가선용 및 동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포인트별 분류

제주시 어영 해안도로 포인트의 개발 방안은 수중 지형의 특성과 수심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한 일반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위한 체험관광코스, 초심자코스, 고급과정코스, 체험 및 자연학습다이빙코스 등으로 분류하여 적합성을 조사하였고, 이의 조사 내용을 제주 전지역의 다이빙포인트와 분석 및 비교하였다. 또한 해안도로 주변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두암-레포츠공원-이호해수욕장을 포함한 해안 관광지로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1) 레포츠공원

해안도로 약 1.5Km중 동쪽에 위치한 레포츠 공원의 경우는 시민의 휴식공간,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년중 연 인원 2000년 현재 50만명이 방문하여 각종 레저스포츠활동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면적도 약 3만평에 달하는 생활체육 공간이다. 레포츠공원의 가장자리에서 해수까지 거리는 약 30m 정도 사이를 두고 해안도로가 가로막고 있다.

레포츠 공원과 어영해안도로의 수중관광포인트를 연계하여 해수를 지하로 직접 끌어와서 『해수풀장 : 수중생태계 학습장 및 초보자들의 초보교육장』을 개발할 경우 운영 및 관리차원에서도 경제성을 띄게 될 것이고, 위험성이 없이 바다 동물들을 자연스럽게 유입하여 초심자는 물론 체험관광객들의 초보 교육장소로도 활용가능하다. 해수풀장에 탈의 및 샤워실정도의 간단한 투자만 할 경우 언제든지 스노클러(snorkler) 및 스킨스쿠버 기초교육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서 수중의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자연조건을 갖출 수 있다.

어영 해안도로변 제 I, II, III, IV 포인트에서 초심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할 경우 다소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해수풀장을 이용하여 기초교육을 할 경우 안전성과, 사전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수중동·식물들을 자연적으로 유입하게 하므로써 자연생태계 학습장, 일반인들의 스노클링 장소로 다양하게 활용가능하다.

또한 어영 포인트 동쪽 용두암을 찾는 관광객 및 시즌기에 이호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어영 해안도로 포인트와 연계하여 안전시설, 편의시설 및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년중 어영해안도로 포인트에서 수중체험을 즐길 수 있는 년 인원은 1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포인트별 해양 생태계 및 포인트 특성

제주시 어영 해안도로 일대의 포인트와 제주 전역 포인트를 비교한 결과인 <표1-1> 및 <표1-2>를 가지고 비교할 경우 제주시 어영 해안도로의 제 I, II, III, IV포인트의 경우 년 평균 수온의 경우 섭씨 19° -21° 의 분포와 년평균 수중의 가시거리가 9m-15m로 년중 수중관광, 교육 및 체험관광, 및 수중자연학습장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수심 및 조류의 경우 여의 발달로 인해 심한 조류는 없는

제주 해안의 수중관광지로서 타당성 연구 (김 세 민 · 류 재 청 · 남 사 웅)

편이며, 수심 역시 5m에서 25m로 초심자, 체험다이빙 및 고급과정의 수중관광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곳으로, 용암의 분출로 인한 수중지형의 형상이 다양하여 모래밭 혹은 아치의 형태를 가진 암초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 곳의 수중 동·식물의 경우도 각종 소형 동물에서부터 회귀 식물성인 연산호, 부채산호, 및 황금빨 산호 등으로 제주도 남쪽해안의 수중 동·식물의 분포와 거의 차이가 없는 지역이다.

반면 제주시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있는 관탈섬의 경우 제주시 해안도로와는 달리 다소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회귀동물에 속하는 각종 수중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제주도 남서쪽의 대표적인 수중관광포인트의 경우 송악산 절벽아래 해안, 형제섬, 차귀도섬, 무릉해안의 경우로서 년중 평균 수온은 19° -21° 의 분포를 이루고, 수중평균 가시거리는 9m-15m에 이르는 곳으로 년중 고급다이빙의 경우 수중관광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강한 조류가 흐르는

<표1-1> 제주시 및 제주전역 수중레저스포츠 포인트 특성별 비교

지역	포인트	수심 및 조류 (약, 중, 강)	년중평균 수온 및 가시거리	다이빙 등급	지형특성	대표적인 수중생물
제주시	어영물동 (제 I 포인트)	· 5m-10m · 약함	· 19-21° · 9-15m	· 초심자교육 · 체험다이빙	· 모래밭교육장 · 여의 형성으로 인한 절벽, 개선문 및 안전 입출수, 민물동	· 자리매, 갯돔, 다금바리, 해파리, 쥐치, 소라, 소형열대어, 스폰지, 미역숲(봄, 여름)
	아치 (제 II 포인트)	· 5m-20m · 약함	· 19-21° · 9-15m	· 초심자교육 · 체험다이빙 · 초급 · 중급	· 암반아치 · 수직동굴 · 인공구조물 · 안전교육장	· 부채산호, 자리매, 광어, 스폰지, 미역숲(봄, 여름), 소형열대어, 갯돔, 소라, 쥐치
	산호군락지 (제 III 포인트)	· 15m-24m · 중간	· 19-21° · 9-15m	· 초급 · 중급	· 다양한 형상의 암반계속 · 다금바리 아치 · 모래밭 암초섬	· 부채산호, 스폰지, 자리매, 광어, 다금바리, 갯돔, 황금빨산호, 한치, 연산호, 쏠베감팽, 자리, 미역숲(봄, 여름), 소라, 전복, 쥐치, 백송산호,
	전투경찰대정문 (제 IV 포인트)	· 5m-10m · 없음	· 19-21° · 9-15m	· 초심자교육 · 체험다이빙	· 모래밭속암초섬	· 광어, 소라, 전복, 쥐치, 자리돔, 미역숲(봄, 여름),
	관탈섬	· 10m-35m · 강함	· 19-21° · 9-15m	· 중급	· 암초계곡 · 절벽비경 · 수중섬	· 감성돔, 갯돔, 다금바리, 옥돔, 대형전복, 연산호, 흑돔,
남서쪽	송악산	· 10m-20m · 중간	· 20-21° · 10-15m	· 초급 · 중급	· 산호아치 · 산호암초	· 연산호군락, 광어백송산호, 갯돔, 자리돔, 부채산호, 쏠베감팽,
	형제섬	· 20m-25m · 강함	· 20-21° · 10-15m	· 중급	· 산호아치 · 산호암초 · 산호동굴	· 연산호군락, 백송산호, 광어, 다금바리, 갯돔, 자리돔, 부채산호, 쏠베감팽, 소라, 미역숲(봄, 여름), 감성돔
	차귀도섬	· 25m-30m · 강함	· 20-21° · 10-15m	· 중급	· 산호절벽	· 연산호, 부채산호, 갯돔, 감성돔, 다금바리, 소라,
	무릉해안	· 7m-15m · 중간	· 20-21° · 10-15m	· 초심자교육 · 체험다이빙 · 초급	· 암초 아치 · 모래밭 암초섬	· 광어, 거북이, 갯돔, 자리돔, 소라, 전복, 미역숲(봄, 여름)
동북쪽	섬지코지	· 7m-15m · 중간	· 18-20° · 10-15m	· 체험다이빙 · 초급	· 동굴 및 산호 절벽	· 연산호, 부채산호, 광어, 소라, 미역숲(봄, 여름), 전복, 갯돔, 다금바리
	성산 일출봉	· 10m-40m · 강함	· 18-20° · 10-15m	· 중급	· 산호절벽	· 석굴, 연산호, 부채산호, 전복, 소라, 갯돔, 미역숲(봄, 여름), 광어,

<표1-2> 제주도 및 제주지역 수중레저스포츠 포인트 특성별 비교

지역	포인트	수심 및 조류 (약,중,강)	년평균 수온 및 가시거리	다이버 등급	지형특성	대표적인 수중생물
서귀포 (문섬 섬섬 법섬 새섬, 지귀도)	산호절벽	· 30m이상 · 중간	· 21-23° · 9-20m	· 중급	· 암초계곡 · 산호절벽	· 연산호군락, 해송, 솔베감팽, 부채산호, 다금바리, 갯돔, 자리돔
	중간섬	· 10m-16m · 강함	· 21-23° · 9-20m	· 중급	· 암초계곡 · 암초절벽	· 연산호군락, 해송, 솔베감팽, 부채산호, 다금바리, 갯돔, 자리돔
	작은항문	· 15m-30m · 강함	· 21-23° · 9-20m	· 중급	· 암초계곡	· 연산호군락, 해송, 솔베감팽, 부채산호, 다금바리, 갯돔, 흑돔 자리돔
	이브의정원	· 20m-30m · 강함	· 21-23° · 9-20m	· 중급	· 암초계곡 · 바위산호	· 연산호군락, 해송, 솔베감팽, 부채산호, 다금바리, 갯돔, 쥐치 자리돔, 라이온피쉬, 흑돔
	에텐의동쪽	· 20m-30m · 강함	· 21-23° · 9-20m	· 중급	· 암초계곡 · 바위산호	· 연산호군락, 자리돔, 라이온 피쉬, 해송, 딩다이빙포인트, 솔베감팽, 부채산호, 다금바리, 갯돔, 자리돔
	콧구멍	· 10m-25m · 강함	· 21-23° · 9-20m	· 초급	· 암초계곡 · 바위산호	· 소형열대어류, 해송, 문어, 광어 부채산호, 신행이, 연산호군락
	산호계곡	· 15m-25m · 강함	· 21-23° · 9-20m	· 중급	· 암초계곡 · 바위산호	· 연산호군락, 자리돔, 흑돔, 다금바리, 갯돔, 라이온피쉬, 부채산호
	산호봉	· 15m-25m · 강함	· 21-23° · 9-20m	· 중급	· 암초계곡 · 바위산호	· 연산호군락, 삼각봉, 부채산호, 자리돔, 황금빨산호, 해송
	기차바위	· 10m-20m · 강함	· 21-23° · 9-20m	· 중급	· 암초계곡 · 바위산호	· 해송, 하트바위, 수중농선, 연산호, 소형열대어류
	썩은섬	· 10m-20m · 강함	· 21-23° · 9-20m	· 초급	· 암초계곡 · 바위산호	· 대형바위터널, 바다가재, 게 연산호, 다금바리, 갯돔, 흑돔, 부채산호
	강정	· 10m-20m · 강함	· 21-23° · 9-20m	· 중급	· 암초계곡 · 바위산호	· 절벽, 연산호, 자리돔, 바닷가재, 부채산호
	외돌개	· 15m-30m · 강함	· 21-23° · 9-20m	· 중급	· 암초계곡 · 바위산호	· 대형바위군락연산호, 터널, 라이온피쉬, 자리돔, 다금바리, 갯돔, 흑돔, 소형열대어
	새섬	· 10m-25m · 강함	· 21-23° · 9-20m	· 초급	· 암초계곡 · 바위산호 · 산호절벽	· 연산호군락, 터널, 다금바리, 갯돔, 문어, 바다가재, 소라
	문섬한계창	· 15m-35m · 중간	· 21-23° · 9-20m	· 초급	· 산호절벽	· 절벽연산호, 거북목, 쥐치, 범돔, 소형열대어, 황금산호, 부채산호
	문섬새끼섬	· 13m-35m · 중간	· 21-23° · 9-20m	· 초급	· 연산호통로 · 연산호절벽 · 바위산호 · 연산호군락	· 세계최대 절벽연산호군락, 범돔, 주걱치, 돌돔, 해송, 소형열대어, 라이언피쉬
	KAL호텔동굴	· 15m-25m · 강함	· 21-23° · 9-20m	· 초급	· 연산호군락	· 연산호, 소라
	섬섬절벽	· 5m-30m · 강함	· 21-23° · 9-20m	· 초급	· 산호절벽 · 모래밭산호섬	· 수중절벽, 연산호, 소형열대어, 자리돔, 갯돔, 해송, 다금바리, 흑돔
	섬섬꽃동산	· 13m-25m · 강함	· 21-23° · 9-20m	· 중급	· 연산호절벽 · 바위산호	· 대형바위연산호, 자리돔, 소형열대어류,
지귀도	· 10m-40m · 강함	· 21-23° · 9-20m	· 중급	· 절벽과 계곡 · 연산호군락	· 라이언피쉬, 절벽연산호, 소라, 다금바리, 갯돔, 흑돔, 해송군락, 소형열대어	

곳인 반면, 적절한 수심의 형제섬과 송악산의 특징인 연산호 군락의 아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이며, 얇은 수심의 무릉 해안의 경우는 제주도에서 알려진 가장 큰 암초 아치를 형성한 곳이다. 반면 차귀도섬의 경우는 제주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류의 흐름이 빠른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급다이버들 이하는 안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곳이며, 이 곳의 수중 비경은 각종 산호 및 대형 동·식물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제주도 남서쪽 포인트의 경우 무릉해안 포인트의 초심자 및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곳 이외는 모두 고급 дай버들 만이 접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체험학습 및 수중체험관광을 위한 다수들이 입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며, 소수 고급 дай버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포인트로 적합하다.

제주도 동북쪽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дай빙 포인트로서 섭지코지와 성산일출봉 해안으로서 년중 평균 수온은 19° -21° 의 분포를 이루고, 평균 수중가시거리는 9m-15m로서 년중 체험관광다이빙이나 고급 дай버들의 수중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섭지코지의 경우는 얇은 수심과 약한 조류로 특성이 되는 바, 아름다운 수중관광의 명소로 알려져 초심자 및 체험관광객들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수중동·식물의 분포로 인해 해녀들의 생활기반은 물론 체험수중관광 및 체험학습장으로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즉 연간 섭지코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2000년 현재 년 인원 약 250만으로 이들의 간접관광과 참여관광을 유도하여 수중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수중안전시설, 수중가이드라인, 및 편의시설을 을 설치할 경우 지역의 경제소득 및 고용창출효과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성산일출봉의 경우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로 인해 고급다이버들을 위한 코스로서 적합하다. 이 포인트의 경우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수를 감안할 경우 안전시설과 교육시설을 겸비한다면 오히려 섭지코지의 경우보다 더 많은 수중체험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는 수중 비경과 동·식물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표1-2〉에서 열거된 각종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최고로 잘 알려져 있는 수중의 비경과 자태를 보여주는 수중관광포인트인 제주도 남동쪽 해안과 연안지역이다. 이 지역은 주로 서귀포시 해안에서 다소 떨어진 무인도의 수중포인트로서 매년 전국적으로 수중관광 축제, 수중사진촬영대회 및 해상공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곳이다. 즉 새섬, 문섬, 새끼섬, 범섬, 섬섬, 및 지귀도에 포함되는 포인트로서 년 평균 수온은 섭씨 21° -23° 로 분포해있고, 평균 수중가시거리는 9m-20m에 이르는 년중 수중관광이 가능한 최적의 수중관광코스이다. 이곳 각각의 무인도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수중동·식물의 서식지와 다양한 수중 지형의 형상에 따라서 붙여진 수중관광 포인트로서 열대성 소형 수중동물에서 대형 동물에까지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산호종류와 연산호 군락지의 비경은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상 〈표1-1〉 및 〈표1-2〉에서 열거된 제주도 동서남북 일대 수중관광 포인트의 특성을 지역별로 요약하면 먼저 제주시 해안도로변의 포인트 I, II, III, IV 및 인근 레포츠 공원의 경우 년 평균 수온의 경우 섭씨 19° -21° 의 분포와 년평균 수중의 가시거리가 9m-15m, 수심은 5m에서 25m로서 년중 어떠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조류의 경우 여의 발달로 인해 심한 조류는 없는 편이다. 수중 동·식물의 경우도 각종 소형 동물에서부터 희귀 식물성인 연산호, 부채산호, 및 황금뿔 산호 등으로 제주도 남쪽해안의 수중 동·식물의 분포와 거의 차이가 없는 지역이다. 이러한 해양조건을 볼 때 년중 수중관광, 교육 및 체험관광, 및 수중자연학습장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며, 체험관광산업의 개발가능지역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수중관광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주변의 하수처리 및 기타 오물로 인해 수중 식물들의 백화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에 계획적인 인공녹화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안전, 교육, 체험관광을 위한 수중 가이드라인, 안전시설, 편의 시설의 설치가 있을 경우 수중관광의 명소로 정착할 수 있으며, 특히 이호해수욕장과 용두암을 찾고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관광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유치작전을 펼쳐 성공할 경우 지역의 경제적 이득은 엄청난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남서쪽 송악산 절벽, 형제섬, 차귀도섬, 무릉 해안의 경우 년중 평균 수온은 19° -21°, 수중평균 가시거리는 9m-15m, 강한 조류와 다양한 수심 등으로 년중 고급다이버들의 경우 수중관광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이다. 특히 형제섬과, 송악산의 연산호 군락의 아치, 무릉 해안의 큰 암초 아치, 차귀도의 빠른 조류 등을 고려할 경우 이 곳의 수중비경을 관광할 수 있는 대상은 고급다이버일 경우 가능하다.

제주도 동북쪽의 섬지코지와 성산일출봉은 년중 평균 수온은 19° -21° , 평균 수증가시거리가 9m-15m로서 7m-15m로 년중 수증관광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고, 다양한 수중동·식물의 분포로 인해 해녀들의 생활기반은 물론 체험수증관광 및 체험학습장으로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반면 성산일출봉 일대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수증의 아름다운 비경 등의 조건을 볼 경우 고급다이버들을 위한 코스로서,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수를 감안할 경우 안전시설과 교육시설을 겸비할 경우 최고의 수증체험관광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곳이다.

서귀포시 일대 무인도(새섬, 문섬, 새끼섬, 범섬, 섬섬, 및 지귀도) 년 평균 수온은 섭씨 21° -23° , 평균 수증가시거리 9m-20m, 15m-30m의 다양한 수심, 다소강한 조류 등의 특성, 수중 동·식물의 비경 등을 고려할 경우 고급다이버들의 최적 수증관광코스로서 적합하다.

3) 접근의 용이성 및 방문객현황

평가기준을 제주국제공항 및 제주시를 기준으로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포인트와의 시간, 거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비교하고, 년중 방문객의 수와 성향을 파악한 결과는 <표2-1> 및 <표2-2>와 같다.

제주시의 어영해안도로의 제 I, II, III, IV포인트의 경우 경우 제주공항으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1km 정도로서 우회하는 도로인 경우 소요시간이 5분내외이며, 소요 교통비는 택시기준으로 기본요금이면 충분한 거리에 위치해있고, 년간 방문객의 수도 2000년 현재 년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의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수증의 관광상품은 제 I포인트의 경우 중급으로 체험관광, 교육장, 및 일반 수증관광상품의 가치를 지니며, 제 II포인트의 경우 중급으로 수증관광의 목적으로 적합하며, 제 III포인트의 경

<표2-1> 제주시 및 제주전역 수증레저스포츠 접근용이성 및 성향

지역	포인트	소요시간(거리 /제주공항)	관광상품 (상, 중, 하)	교통경비 (원/1인)	다이버수 /년	방문객성향 (외지, 도민, 혼합)	숙박 시설	탈의 및 샤워시설
제주시	어영물동 (제 I 포인트)	5분(1km) /택시	중 교육장 수증관광	2천	10만	혼합	제주시	X
	아치 (제 II 포인트)	5분(1km) /택시	중 수증관광	2천	5만	혼합	제주시	X
	산호군락지 (제 III 포인트)	5분(1km) /택시	상 수증관광	2천	3만	혼합	제주시	X
	전투경찰대정문 (제 IV 포인트)	5분(1km) /택시	하 교육장	2천	2만	도민	제주시	X
	관탈섬(대, 소)	40km(왕복 3시간/벃길)	상 수증관광	5만	5만	외지	제주시	X
남서쪽 (사계리)	송악산	1시간(50km) /택시, 배길30분	상 수증관광	4만	5만	혼합	대정읍	X
	형제섬	1시간(50km) /택시, 벃길30분	상 수증관광	4만	5만	혼합	대정읍	X
	차귀도섬	40분(35km) /택시, 벃길20분	상 수증관광	2만	2만	도민	고산	X
	무릉해안	50분(40km) /택시	중 수증관광 교육장	2만	1만	혼합	대정읍	X
동북쪽 (성산포)	섬지코지	1시간(50km) /택시	상 수증관광	3만	2만	외지	성산읍	X
	성산 일출봉	1시간(50km) /택시	상 수증관광	3만	2만	혼합	성산읍	X

<표2-2> 제주시 및 제주전역 수중레저스포츠 접근용이성 및 성향

지역	포인트	소요시간(거리/ 제주공항)	관광상품 (상, 중, 하)	교통경비 (원/1인)	다이버수 /년	방문객성향 (외지, 도민, 혼합)	숙박 시설	탈의 및 샤워시설
서귀포 (문섬, 섬섬, 범섬, 새섬, 지귀도)	산호절벽	1시간(50km) /택시, 뱃길3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2만(배씩)	10만	혼합	서귀포	X
	중간섬	1시간(50km) /택시, 뱃길3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2만(배씩)	10만	혼합	서귀포	X
	작은항문	1시간(50km) /택시, 뱃길3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2만(배씩)	10만	혼합	서귀포	X
	이브의정원	1시간(50km) /택시, 뱃길3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2만(배씩)	10만	혼합	서귀포	X
	에덴의동쪽	1시간(50km) /택시, 뱃길3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2만(배씩)	10만	혼합	서귀포	X
	곶구멍	1시간(50km) /택시, 뱃길3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2만(배씩)	5만	혼합	서귀포	X
	산호계곡	1시간(50km) /택시, 뱃길3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2만(배씩)	7만	혼합	서귀포	X
	산호봉	1시간(50km) /택시, 뱃길3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2만(배씩)	7만	혼합	서귀포	X
	기차바위	1시간(50km) /택시, 뱃길3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2만(배씩)	5만	혼합	서귀포	X
	썩은섬	1시간(50km) /택시, 뱃길2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2만(배씩)	5만	혼합	서귀포	X
	강정	1시간(50km) /택시, 뱃길2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5만	혼합	서귀포	X
	외돌개	1시간(50km) /택시, 뱃길2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3만(배씩)	10만	혼합	서귀포	X
	새섬	1시간(50km) /택시, 뱃길1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1만(배씩)	10만	혼합	서귀포	X
문섬한계창	1시간(50km) /택시, 뱃길20분	상 수중관광	3만(택시) 1만(배씩)	20만	혼합	서귀포	X	

우 상급으로 고급다이버들의 수중관광포인트로 적합한 수중환경을 가지며, 제Ⅳ포인트의 경우 하급 수준으로 단순히 교육장 내지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해안도로의 포인트를 방문하는 성향은 주로 제주도 동호인 내지 학생 및 도내외 수중관광객들이며, 제주시 해안도로 포인트를 방문하는 경우 숙박시설은 주로 제주시 거주 및 방문객을 구성하고 있다. 관탈섬의 경우는 도두항에서 약 40km로 배로 왕복할 경우 3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소요경비 역시 1인당 왕복 5만원으로 다소 비싸기 때문에 방문객의 수도 연간 약 5만명내외가 된다.

제주시 포인트를 방문하는 수는 년중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에 반해 주변에 탈의, 샤워, 휴게실, 초보교육을 위한 안전시설 및 의료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추후 방문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 갖추어질 경우 국제공항 및 제주시로부터 교통편의 시설이 좋기 때문에 도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쿠버 동호인 및 교육생들로 만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21세기 국제자유도시화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동호인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비하여 지방자치정부에서는 시설투자 및 체험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의 배경적 이유로서 21세기의 해양 레포츠 관광 산업은 무공해적이고 고부가가치성, 지역특수성에 따른 상품개발, 서비스산업으로서의 고용증대 등의 이점을 가지는 주요 산업으로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상승시키는 효과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해 사회복지 실현할 시킬 수 있는 미래첨단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해갈 것으로 사

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화로 가는 길목에서 미래의 관광개발 전략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관광지를 중심으로 야외 스포츠 및 수중레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며, 특히 현재 세계관광객의 70% 이상이 해양과 관련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지 선호도 분석결과 도서 및 해양환경 속에서 머물고자 하는 관광객 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윤이중 외, 1999)는 조사결과를 뒤받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제주도 남서쪽의 포인트인 경우 제주시와 비교해서 송악산과 형제섬의 경우는 국제공항에서 약 50km의 거리에 위치하여 도착하는 소요시간이 최소한 1시간 이상 소요되며, 다시 배를 타고 포인트로 향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경제성이 제주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곳을 방문하는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년 12만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곳의 수중 관광 상품의 경우 상급으로 서귀포 일대의 것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을 정도의 비경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제주공항으로부터 교통비, 시간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불편이 따르며, 이곳을 찾는 방문객 성향은 주로 도의 동호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차귀도와 무릉 해안가의 경우 역시 제주공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며, 제주시에 비하여 교통비, 시간적인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며, 수중관광상품 역시 중·상급으로서 이 남서쪽 포인트의 경우 모두 고급다이빙들에 한해 가능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중관광포인트로서는 적합하지만 체험관광, 교육장 및 수중자연학습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한편 제주도 동북쪽의 포인트인 경우 제주시와 비교해서 성산일출봉포인트의 경우는 국제공항에서 약 50km의 거리에 위치하여 도착하는 소요시간이 최소한 1시간 이상 소요되며, 제주공항으로부터 거리와 시간소요 차원에서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곳을 방문하는 년인원 역시 약 4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중관광상품은 상급으로서 이 동북쪽 성산일출봉의 경우 모두 고급다이빙들에 한해 가능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중관광포인트로서는 적합하지만 체험관광, 교육장 및 수중자연학습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제주 남서쪽 포인트와 동북쪽 포인트 역시 제주시 해안도로 포인트와 비교할 때 공통점은 동호인의 방문 수는 년중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에 반해 주변에 탈의, 샤워, 휴게실, 초보교육을 위한 안전시설 및 의료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추후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다이빙을 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된다.

앞으로 제주전역 포인트에 대한 시설투자 및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이유로서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 영역은 레포츠를 겸한 관광활동이 혼합되는 영역으로서 종전의 수동적관광에서 능동적 관광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산 일출봉과 섭지코지를 방문하는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중의 체험관광을 시킬 수 있는 관광패키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21세기의 관광형태는 과거의 수동적인 틀을 벗어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스틸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수중 및 레포츠 관광상품을 선호하는 형태로 변모해 나아갈 전망이다. 이러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을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개발하므로서 지방자치체의 정부하에서 지역경제 및 고용 증대에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제주도 서귀포시를 중심으로한 새섬, 문섬, 새끼섬, 섬섬 및 범섬의 경우 제주시와 비교해서 제주공항에서 약 50km의 거리에 위치하여 도착하는 소요시간이 최소한 1시간 이상 소요되며, 다시 배를 타고 포인트로 향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소요경비가 크지만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있는 이 일대의 수중 동·식물의 분포는 관광객을 현혹시키는 상품으로서 뿐 아니라 회귀 동·식물들의 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2000년 현재 년인원 100만명을 넘는 수중관광객이 집중하는 포인트들이다. 제주도의 어느 포인트들보다

수중관광 지역이 넓고 다양한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포인트들은 안전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수심과 조류의 특성으로 인해 초심자들이나 체험관광객 및 수중자연학습장의 포인트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주고 중급이상 및 특수 목적분야 및 학술연구자들의 다이버들에게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스쿠버 동호인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지자체 행정부가 운영하는 해상관광지로 지정할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는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공항으로부터 교통비, 시간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불편이 따르며, 이곳을 찾는 방문객 성향은 주로 도내·외 동호인으로 구성되며, 수중관광 상품으로서의 최상급에 이르고 있지만 각 포인트마다의 주변에 탈의, 샤워, 휴게실, 안전시설 및 의료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추후 수중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찾고 싶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각적인 정책안과 시설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제주도 전지역에 걸친 수중관광포인트 개발 및 투자계획, 시설보완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광객유치 등의 목적으로 각종 레포츠 관광산업의 개발과 투자에 이어 유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해양레포츠 상품개발, 광고와 이벤트, 프로그램 서비스, 마케팅 전략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적합한 산업구조에서 투자 우선 순위도 변화시켜 특성화된 관광상품에 대해 기업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특성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와 같이(한국관광연구원,1997), 21세기 레포츠 관광정책의 방향은 급속한 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형태에 대응하는 수요-공급 차원에서 탄력성을 가지는 시설의 다양성과 현장의 서비스,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상품개발(프로그램 개발, 레저관광코스개발, 관광상품 가격결정),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세분화하여 표적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오정영, 강진형, 김학신, 1999)고 제안했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관광의 형태가 항공 및 해양스포츠의 자연적인 야외스포츠가 내륙·산간을 이용한 스포츠에서 수면·해양을 이용한 해양 레포츠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인공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레포츠에서 지형과 지리적 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레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므로서 관광객은 물론 청소년들의 산과 바다 및 강의 자연상태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포츠를 통한 친환경적 교육차원의 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각종 편의시설 및 보완시설

제주시 해안도로 포인트들에 대한 각종 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3>과 같으며, 응급의료시설, 휴식공간, 토론장, 샤워실 및 탈의실, 강의실, 초보자를 위한 풀장 교육장소, 준비운동 공간, 수중인공구조물설치, 안전관광을 위한 수중가이드라인 설치 및 오염에 따른 수중인공 녹화사업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즉 21세기 제주도 레포츠 관광정책은 소비자 형태에 대응하는 수요-공급 차원에서 다양성과 현장의 서비스,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상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세분화하여야 하며,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여가레포츠를 겸한 관광활동은 정적관광(수동적)에서 탈피하여 움직임(능동적)에 참여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21세기 국제자유도시화에 적합한 관광형태는 과거의 수동적인 틀을 벗어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스틸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레포츠 관광의 형태이며,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을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개발하므로서 지방자치체의 정부하에서 지역경제 및 고용 증대에 미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할 때 <표-3>에 제시한 시설설치 및 보완이 될 경우 제주시 해안도로변 포인

〈표-3〉 제주도 해안도로 포인트의 필요시설 및 오염정도

시설	포인트	제주시 해안도로변 포인트				
		어영물동 (제Ⅰ포인트)	아치 (제Ⅱ포인트)	산호군락지 (제Ⅲ포인트)	전투경찰대앞 (제Ⅳ포인트)	레포츠평원
다이버 만남의 집 (실내시설)	· 숙박시설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 응급의료시설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 이론교육 및 회의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 샤워 및 탈의실	필요				
각 포인트별 시설 및 수질 오염정도 (실외시설)	· 간이샤워 및 탈의실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 해수풀장 (기초교육장)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요
	· 준비운동 · 휴게소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 수중인공구조물 (수중안전 및관광용)	필요	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 수중안내가이드라인	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 수중백화현상지역	조금 (인공녹화사업)	조금 (인공녹화사업)	조금 (인공녹화사업)	조금 (인공녹화사업)	
	· 오물처리장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 포인트차량접안시설 · 준비운동공간	있음	없음	없음	없음	
	· 오염정도(상, 중, 하)	하	상	상	상	
	· 인공녹화사업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트에 대한 인식도와 수중관광객의 급증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1세기 제주의 국제자유도시화로 가는 길목에서 경제성 원리에 따라서 접근의 용이성, 적은 비용, 아름다운 수중관광 및 체험학습장, 안전한 수중관광을 추구하는 인구의 증대로 경제수준 및 여가시간에 비례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제주 관광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5) 제주시의 행정적 지원

21세기의 레포츠 관광 산업은 굴뚝이 없는 무공해적이고 고부가가치성, 지역특수성에 따른 상품개발, 서비스산업으로서의 고용증대 등의 이점을 가진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해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미래첨단산업으로서 주목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광객유치를 위해 각종 레포츠 관광산업의 개발과 투자를 위해 레포츠 상품개발, 광고와 이벤트, 프로그램 서비스, 마케팅 전략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하고, 관광의 형태가 항공 및 해양스포츠의 자연적인 야외스포츠가 내륙·산간을 이용한 스포츠에서 수면·해양을 이용한 해양 레포츠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친환경적 관광 및 교육차원의 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의 스포츠로서 지역의 특수적인 자연 친화적인 환경속에서 산, 바다, 호수, 강, 하늘을 이용한 자연 스포츠로서 카누, 하이킹, 산악등반, 스쿠버다이빙, 야외수영, 보트타기, 급류타기, 요트, 윈드서핑, 행글라

이당, 스카이다이빙, 스키, 번지점프, 골프 등으로 자연속의 스포츠는 경제수준과 여가시간의 증대와 비례하여 계속 성장해 갈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3차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구성은 1998년 현재 87.5%를 차지하고, 여기에 고용 인구 69.6%로서 3차산업의 비율이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제주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1999).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산업구조는 21세기 미래산업의 경우는 3차산업의 비율이 더 크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3차산업의 구조도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해양-하늘-산」을 기본으로 하는 관광객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형태의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더욱 투자하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때이다.

21세기 제주도의 레포츠 관광의 경우 지방자치제로 전환 이후 생존 전략 산업으로서 각종 문화행사, 스포츠 산업, 해양산업, 아열대산업, 관광산업의 주요 정책으로 전환하여 종전의 산업구조를 국민의 의식구조, 생활수준의 변화,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시대와 국제상황에 걸맞게 변화시켜 국제자유도시로서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전의 제주도 경제 정책과정에 없었던 고부가 가치산업인 「스포츠 산업」을 강조하므로서 전국 및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 및 레포츠 관광 도시로서의 홍보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제주를 찾은 스포츠인구와 레포츠 관광인구는 자연스포츠(eco-sports)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매력력을 느낄 수 있다. 즉 「오름(사계절 가능한 인공스키장)-바다(해양레포츠)-중산간(골프시설)-하늘(항공레포츠)」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제주도의 주요 공간으로 각각의 친환경적 자연자원의 기능을 적절히 개발하고 보존하게 될 때 제주도의 미래 레포츠 관광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제주관광은 주로 수동적인 관광형태 상품이며, 상품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30년 안팎으로서 미래의 제주 레포츠관광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주도 특성에 맞는 참여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투자가 절실한 때이다. 특히 제주도의 특성에 적합한 항공-해양스포츠-중산간을 이용한 레포츠 관광상품 개발과 종전의 관광개념을 혼합한 중산간(골프)-해양(해양레포츠)-항공 레포츠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공항의 인근 제주시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 수중경관을 다소간의 편의시설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홍보가 될 경우 제주도 타 지역의 포인트에 비해 시간과 경비면에서 절감효과를 노리고, 청소년들의 수중의 아름다운 모습을 안전하게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 활용하는 데 훨씬 용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제자유도시의 중심도시인 제주시의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으로서 수중레포츠 관광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의 산업촉진, 인프라기반구축, 고용증대, 서비스산업발달, 스포츠 용품산업발달 분야에서 제주시의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인 제주시-제주관광협회-어촌계간-학계간의 상호 협조아래 제주시 해안도로변 수중관광포인트 투자, 개발, 홍보 및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N.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시 어영 해안도로변 수중관광포인트와 다른 지역의 수중관광 포인트를 경제성, 상품성, 수중 동식물 분포, 수중지형, 안전성, 년중 방문객 등의 면에서 비교한 후 제주시 어영해안도로 포인트의 개발 가치성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특성인 항공-해양스포츠-중산

간을 배경으로 종전의 수동적 관광개념을 혼합한 증산간(골프)-해양(해양레포츠)-항공 레포츠의 친환경적 참여 형태의 레포츠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으로서 제주시 어영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수중관광포인트의 수중 레포츠 관광 및 청소년들의 체험 학습 장소를 위한 해양관광 코스의 상품개발을 위한 방안에 관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1) 제주시 어영 해안도로변의 포인트별 특성에 따라서 수중체험관광용, 수중자연학습장, 초심자교육장, 초보자용, 중급자용, 고급 다이버들의 수중경관을 체험관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적인 수중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
- 2) 제주시 어영 해안도로의 수중관광 포인트 개발은 서쪽 이호해수욕장과 동쪽 용두암 및 레포츠공원과 연계시켜서, 체험관광객을 위한 교육, 안전 및 편의 시설을 갖춘 후 년중 가능한 수중체험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경제적, 고용촉진면에서 그 파급효과 클 것이다.
- 3) 제주시 어영해안도로변 포인트와 제주 전역에 산재한 포인트간의 비교결과 안전성, 경제성, 접근의 용이성에서 유리한 입장이며, 수중관광상품 가치면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지만 안전시설, 편의 시설, 샤워 및 탈의시설, 수중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4) 제주시 어영 해안도로변 포인트 마다의 수중오염에 의한 수중동·식물의 성장과정을 종단적 및 체계적으로 분석하므로써 수중 황폐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재 백화현상을 보이는 지역은 인공녹화사업을 통해 풍부한 관광자원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5) 제주시 어영해안도로변 포인트별 시설투자는 해수풀장, 탈의 및 샤워실, 숙박실, 이론교육장, 수중안전가이드라인설치, 의료응급센터 등이 구비될 경우 안전하고 즐거운 수중체험관광 및 학습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 6) 위 사항을 보완 및 개발을 위해서는 제주시-어촌계-레저스포츠전문가-관광협회-학계의 협력으로 수중생태계연구, 투자, 개발,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여건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21세기 제주 국제자유도시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중심도시인 제주시에 인구유입, 나아진 경제수준, 여가시간의 증대로 말미암아 급증하게 될 레저스포츠관광에 참여 인구 및 관광객을 위해 다양하고 능동적 참여형태의 레포츠관광 상품개발이 필요한 때이다. 자연친화적인 레저스포츠 관광상품 개발로 인해 타 지역의 상품과 차별화 시키는 방법은 높은 경쟁력과 제주의 특성인 「해양-증산간-오름-하늘」을 이용한 해양레저관광상품, 골프레저관광상품, 항공레저관광상품 등의 참여형태의 새로운 관광상품이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하여 제주시 어영 해안도로변 일대를 중심으로 날로 급증하는 수중관광포인트 개발을 위해서 이호해수욕장-어영해안도로-레포츠공원-용두암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험수중관광포인트의 개발이 이루어 질 경우 지역경제, 고용촉진은 물론 제주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제시하므로써 타지역의 상품과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입지를 갖출 수 있다.

참고 문헌

김학신 · 이덕성 · 민창기(2000).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레포츠시장의 개발방향. 제38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883-893.

- 김치조(1997). 스포츠 · 레저산업론, 도서출판 21세기교육사, PP. 14-42.
- 서천범(1998). 2000년대 레저산업, 기아경제연구소.
- 오정영 · 강진형 · 김학신(1999). 레포츠시설 서비스환경이 가격수용과 지각된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8권 1호, 648-654.
- 윤이중 · 배성환 · 김인숙(1999). 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위한 레저스포츠의 연계 방안. 광주 · 전남 대학스포츠과학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지 제15호.
- 윤이중 · 차은희(1999). 야외 레저스포츠와 환경갈등에 대한 제고. 광주 · 전남대학스포츠과학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지 제16호. pp. 61-73.
- 정영린 · 이흥구(1996).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35권 제3호, 202-212.
- 제주도 · 제주도 관광협회(1994). 관광객만족도 조사. 해동인쇄사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1994). 제주도.
- 제주도 관광협회(1996). 관광객 만족도조사. 제일원색인쇄사.
- 제주도(1999). 제주도 사업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25-38.
- 한국관광연구원(1997).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본연구보고서. 83-87.
- Camp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Mancini, J. & Orthner, D.K(1980). Situational influence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morale in old ag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Association, 28(16), 466-471.
- William O. Johnson(1974). From here to 2000. Sports Illustrated, 41.
- Wrangel, L.M., & Berger, B.G.(1990).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benefits of sports and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67-182.